

술선수범의 품성이 한마음되어

부산 일심회



남상백 회장
(비드프랑스과자점 생산부장)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고된 작업이다. 뾰족한 돌맹이가 물길을 따라 쓸려오면서 부드럽고 단단한 조약돌로 변하는 것처럼 자신을 물속에 던지는 용기가 필요하고 모란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강물의 포용력이 필요한 것이다.

부산 베이커리 기술자들의 모임인 일심회(一心會·회장 남상백)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개인의 용기와 모임의 포용력이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 10년 가까운 세월을 흘러왔다.

“부산 지역의 몇몇 기술인들이 지역 제과제빵기술 및 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설뿐 점도 많았지만 의욕과 열정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창립 멤버인 김상남(황태자과자점 대표)씨의 말이다.

90년 기술발전 위해 12명이 결성

일심회는 현 회장인 남상백(비드프랑스 생산부장)씨와 더불어 김상남, 김해근(빠리장과자점 상무), 안영수(덴마크과자점)씨 등의 주도로 결성됐다. 기술적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이 모임은 초기에는 기술세미나, 제품 토론회 등을 통해 기술연마에 주력했다. 이후 12명의 회원이 3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차츰 연륜도 쌓이고 조직도 탄탄해지자 부산지역 베이커리업계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산 과업인 협동수련회'. 96년 11월 처음 개최된 이 행사는 지난 8월 3회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매회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됐다. 특히 이번 3회 수련회는 참가자 범위를 경남지역까지 확대해 '새천년을 준비하는 과업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일심회 구성원들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분포돼 있는데 선배들의 술선수범과 후배들의 열의가 잘 조화돼 있다. 이번 3회 수련회에서도

뒤치다꺼리는 선배들의 몫이었고 후배들은 그런 선배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자신들이 가져야 할 품성을 배우고 있었다. 선배의 술선수범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남상백 회장이 지난 98년 제3회 하이박 경연대회에 출전,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대회를 앞두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엔 제 나이가 좀 많다고 느껴져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그런 큰 대회에 나가 입상도 못하면 무척 부끄러운 일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대회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입상을 못하더라도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어요?”

20대 후반의 한 회원은 “선배의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회의가 들 때도 많아요. 이 모임은 그렇게 쌓인 응어리를 풀어놓을 수 있는 쉼터이자 미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매월 17일에 모임을 갖고 있는 일심회는 제품 토론회를 통해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업계 현안에 대한 소식 및 경영 관련 정보도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

일심회는 '가난한' 모임이다. 매월 회비를 걷고 있지만 그렇게 적립된 기금은 수련회, 기술세미나 등 회원 및 지역 기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에 지출되기 때문이다. 남 회장은 “회비를 차곡 차곡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회원들을 한 마음으로 단합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모임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일심회의 한 마음 정신이 부산은 물론 전국으로 번져나가기 기대해본다. [본문] <글/ 손인수>



지난 8월 제3회 부산 과업인 협동수련회에서 한 데 모인 일심회 회원들.